

한국천문연구원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문홍규 사무국장

2009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한 지 400년이 되는 해로, 국제천문연맹(IAU)과 유네스코(UNESCO)는 이를 기념하고자 올해를 '세계 천문의 해(IYA2009, 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로 지정했다. 세계 천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고,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낼 사람이 있다. 바로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문홍규 박사가 그 장본인이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창 들떠있던 지난 달 24일, 잠시 짬을 내 서울 집에 올라온 문홍규 박사를 그의 집에서 만날 수 있었다. 기자를 반갑게 맞는 그를 따라 들어선 집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 실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쁘고 세련돼 보였다. 세계 천문의 해 얘기는 잠시 미루고 집 얘기부터 시작했다.

“지난 여름에 이사 오면서 꾸민 건데요. 아주 싸게 했습니 다. 아내랑 방산시장에 가서 직접 벽지를 고르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는 고속터미널 상가에서 샀어요. 그렇게 발품 팔아서 꾸몄습니다. 저가로 했는데, 오셔서 보신 분들마다 예쁘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딸아이도 좋아하고요.”

문홍규 박사는 약 1년 정도 혈혈단신으로 호주 생활을 했었다.

“딱 1년 있었습니 다. 박사 학위를 9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여러 일을 맡았고, 맡은 일은 대충

하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제 스스로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 일복도 많았고요. 그러다보니 공부는 계속 뒤처지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큰 결심을 하고 혼자 갔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시켜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도 가능한 사람들과 교류도 자제했습니다. 혼자만 틀어박혀 있는 성격이 못되는데... 힘든 시기였죠.”

2005년 말에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온 문 박사는 이전에 맡았던 근지구천체 프로젝트와, 이후 진행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 해 세계 천문의 해 일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사무국이 문을 열었고, 진용을 갖추 본격 가동을 시작한 건 10월이었습니다. 시작이 좀 늦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등 세 기관이 MOU를 맺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하에 여러 지원 조직과 5개 분과를 두고 있다. 교육, 문화, 행사, 미디어, 학술 등 5개 분과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천문학과 관련된 여러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망원경으로 별 보는 체험을 갖게 하고, 그로부터 우주가 어떤 곳이며, 스스로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발견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자는 게 모토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 기초 과학에 대한 인식 재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사업에서 큰 화두가 천문학의 사회·문화적 확산입니다. 일례로, 올해 있을 충무로국제영화제에 특별 세션을 만드는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 우주를 테마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죠. 몇 개 출판사와는 우주에 관한 책을 많이 선보이자는 얘기도 진행 중입니다. 출판이던, 영화던, 올해가 지나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재활용되고, 별과 우주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낱이며, 일반인이 좋아할 수 있는 테마이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교육 분야에는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관이나 시민천문대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협력해 개발하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인터넷 포털 ‘우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천문 관련 기관과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은 ‘천문학 지식사업’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나 포털사이트를 보면 천문학 콘텐츠가 양도 적고 질도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트와 제휴해 콘텐츠를 보강하고 올바른 천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주를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인 ‘스케치북에 담은 우주’, 항상 대하고 있어 무심하기 쉬운 태양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태양이라는 이름의 별’, 문화계 인사들의 다양한 글을 접할 기회가 될 ‘문화, 우주를 만나다’, ‘천체 사진 전시회’, ‘별밤보존 프로그램’, ‘고화질 달 사진 프로젝트’ 등 올 한 해 진행될 행사는 다채롭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방대하다.

“좀 특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있다면, ‘병원 순회 프로그램’입니다. 암 투병을 했던 이지운 박사님이 제안한 것인데요. 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아서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병상에 누워 남들이 틀어주는 TV 채널을 보다가 숨을 거두는데, 죽음을 앞둔 분이라도 만약에 우주가 어떤 곳인지를 듣고, 보고, 느끼고 눈을 감는다면, 죽음의 의미가 다르지 않겠냐는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확 막히더군요.”

크지 않은 천문학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항상 손이 부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단다.

“욕심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마추어 천문인과 국외자분들

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필요하다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돕겠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정말 반갑고, 고맙고, 꼭 안아드리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홍규 박사는 자신이 한 세 명쯤 됐으면 하는, 공상 아닌 공상도 한단다. 한 사람은 쉬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늘 손이 부족합니다. 뻔히 보면서 놓치는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안타깝죠. 그래도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무국 직원들이 있어 힘이 됩니다.”

현재 사무국 사무실에 두 명의 직원이 문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 직원에 대한 칭찬이 이어진다.

“김지혜 씨는 대학을 갓 졸업했음에도 통찰력과 판단력, 업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경숙 씨는 업무 처리 속도가 광속이에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단니까요. 두 사람이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크게 갖고 있는 건 가족이다.

“제가 요즘 남편과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지금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 딸아이가 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갈릴레이, 케플러, 아이슈타인의 전기를 즐겨 읽고, 5학년 때 망원경으로 처음 달을 보고 천문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문홍규 박사. 우주에 대한 동경은 훨씬 더 어렸을 적에 갖게 되었다고 한다.

“글을 못 읽을 적에 부모님께서 세 권으로 된 컬러학습도감을 사주셨어요. 그 첫 권이 ‘우주, 지구, 기상, 일렉트로닉스’였습니다. 탐사선이 목성과 화성에 가기 전이어서 모두 상상도였죠. 그 그림들을 보면서 지구 밖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막연한 동경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의 동심으로 바라 본 우주만큼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가 있을까.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우주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자 하는 문홍규 박사와 여러 천문인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동심과 밤하늘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라본다.

